

세계도시

2006. 4. 3. 제140호

목 차

도시경영·경제

1. 도심부에 바이오테크놀로지 단지 조성 (파리)
2. 오우슈市 합병건설계획 추진 (일본 이와테縣)
3. 타 자치단체의 시찰과 조사 유료화 (요코하마)
4. 연간 24억원 투입해 전통기업 지원 (북경)
5. 산학 협력으로 차세대 수소전기 자동차 개발 (상해)

복지·문화

6. 市營 지하철역을 시민복지의 복합거점으로 활용 (요코하마)
7. 부인 직장에 육아휴직제도가 있으면 출산율 3배 증가 (일본)
8. 배우자 폭력 대책 기본계획 수립 (동경)
9. 자극적인 관광홍보문구 찬반 논란 (호주)

도시환경

10. 공공기관의 에너지 절약 유도를 위해 열화상(熱畫像) 사진 공개 (영국)
11. 베이지역 오솔길 조성비용 추정 연구 실시 (캘리포니아州)
12. 2006년 옥상녹화 면적 300만㎡ 달성 계획 (북경)

도시교통

13. 민관 파트너십으로 최적 신호체계 구축사업 추진 (베를린)
14. 시드니 공항전철 매각 추진 (호주 뉴사우스웨일즈州)
15. 어린이 안전한 자전거 타기 경시대회 개최 (런던)
16. 투자 확대로 버스 서비스 대폭 개선 (런던)
17. 지하철 소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신소재 및 기술 개발 (상해)

도시계획·건설·주택

18. 저소득층과 중산층을 위한 10개년 주택개발계획 발표 (뉴욕)
19. 미국계획협회 우수계획상 수상작으로 '웨스트 첼시 하이라인' 계획 선정 (뉴욕)
20. 도시재생을 위한 운하복원계획 추진 (영국 브래드포드市)
21. 도시조명경관 연구센터 확장 (프랑스 리옹市)

1. 도심부에 바이오테크놀로지 단지 조성 (파리)

파리 도심부 센느강변에 유럽 최초의 의료센터 네트워크와 대형 약학연구소가 들어서는 바이오테크놀로지 단지(바이오 파크, Biopark)가 조성된다. 이를 통해 파리는 바이오기술 분야를 선점해 세계적 경쟁에서 앞서나가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 앞으로 10,000명 이상의 관련 분야 연구원이 이 곳에서 연구하게 되며 이 단지는 교육기관과 연구기관으로서의 기능도 맡게 된다. 약 31,000㎡의 복합공간 중 18,000㎡는 바이오 의학기술 분야시설로 사용되며, 나머지는 사무실 공간으로 쓰인다. 올 여름 전에 첫 번째 회사가 입주할 계획이다.

a(Paris, 2006. 3. 18)

(www.paris.fr)

2. 오우슈市 합병건설계획 추진 (일본 이와테縣)

2006년 2월 20일 미즈사와(水沢)市, 에사시(江刺)市, 마에사와(前沢)町, 이사와(胆沢)町, 코로모가와(衣川)村의 5개 시정촌(市町村)이 합병해 오우슈市가 탄생했다. 오우슈市는 인구와 면적 면에서 이와테縣의 핵심도시가 되었으며, 市 본청은 현재의 미즈사와 시청에 두고 시정촌에 종합 출장소를 뒀다. 2006년 3월말까지 「합병특례법」에 근거한 지역 자치구를 마련한다. 합병특례법에 따른 「헤이세이(平成) 대합병」의 목적은, 재무행정을 개혁해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이다.

신도시건설계획에는 합병 후 10년간 670억 엔(약 5600억 원) 규모의 건설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합병건설계획 재원 마련을 위해 174억 엔(약 1400억 원) 규모의 합병특례채(합병 이후 10년에 걸쳐 공공사업에 충당하는 지방채)를 발행한다. 이 계획은 市 공무원 약 200명의 단계적 감축과 20년간 385억 엔(약 3200억 원)의 경비 절감을 가져다줄 것으로 예상된다.

1999년 4월 일본에서 처음으로 합병한 효고縣의 사사야마市 이후 2006년 3월까지 합병을 통해 히로시마, 에히메, 나가사키, 니가타縣에서 시정촌 수가 1/3 감소했다. 홋카이도에서는 180개의 시정촌이 남았고, 오키나와와 나라縣은 20% 정도 감소했다. 합병하지 않은 정촌은 인근 시정촌과 협력해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광역제휴」를 모색하고 있다. 1999년 3월말 현재 2,562개에 이르던 일본의 정촌이 2006년 3월말에는 1,045개로 줄어들었다.

(www.yomiuri.co.jp/e-japan/iwate/news001.htm)

(chubu.yomiuri.co.jp/news_top/051019_4.htm)

(아사히신문, 2005. 3. 29)

3. 타 자치단체의 시찰과 조사 유료화 (요코하마)

일본 요코하마市는 시찰 대응 업무가 과다해지면서 2006년 4월부터 타 자치단체의 시찰 및 조사에 대한 회신을 유료화하기로 했다. 유료화 대상은 市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 25개 항목이다. 요코하마市의 시찰 유료화는 서구에 유사 사례가 있지만 일본에서는 처음이다. 유료화 대상은 '10년 내로 쓰레기 30% 감량을 목표로 하는 G30 계획', '市 소유시설에 기업광고 게시 사례', '직원 의식개혁과 市 분권 사례' 등 일본

내에서 선구적으로 추진해 타 자치단체의 관심이 높은 시책이다. 요금은 시찰자가 1명일 경우 1시간 30분에 5,000엔(약 42,000원)이며 1명이 늘어날수록 1,000엔(약 8,300원)이 추가된다. 조사에 대한 회신요금은, 1건에 50개 항목 이내이면 3,000엔(약 25,000원)이며 10개 항목이 늘어날수록 1,000엔(약 8,300원)이 추가된다.

요코하마市는 市가 추진하는 선진사례가 주목을 받는 것은 기쁜 일이지만 시찰 대응 준비에 많은 시간이 소요돼 방문 및 문의건수를 억제하고 재정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게 하기 위해 유료화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시찰 요금은 해당 부서의 수입이 된다. 유료화 대상인 25개 항목에 대한 시찰과 조사는 2005년 4월부터 2006년 3월 현재까지 약 600건 정도 있었다. 市는 유료화 후 어느 정도 시찰이 있을지 예상하기 어려우나 최소한 1건은 있을 것이라는 전제 아래 2006년도 예산안에 1건분 5,000엔(약 42,000원)을 계상하고 반응이 좋으면 요금 인상도 검토할 예정이다.

(朝日新聞, 2006. 3. 9)

4. 연간 24억원 투입해 '전통기업' 지원 (북경)

북경市에는 근대 이전부터 존재하는 역사적인 기업인 '전통기업'이 300여 개 있다. 이러한 전통기업은 북경市 산업·문화 분야의 중요 자원이다. 북경市 상무국은 2006년에 최소 2000만 위안(약 24억 원)을 투입해 전통기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전체 기업체의 1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북경市에는 전통기업이 많다. 청나라 때부터 유지해온 북경 오리구이점, 중국 전통신발 제조업체, 비단제품 생산업체 등 전통기업의 당면 과제는 현대적인 유통방식 도입이다. 따라서 연쇄경영 방식, 현대화된 물류·유통 방식의 도입으로 시장을 얼마나 개척할 수 있느냐가 전통기업의 사활을 결정하는 열쇠가 된다. 북경市 상무국은 전통기업 지원을 2006년 주요 업무로 정하고 재정담당부서와 협의한 후 재정지원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北京晚報, 2006. 3. 12)

5. 산학 협력으로 차세대 수소전기 자동차 개발 (상해)

상해市는 독일 폭스바겐 연구기지가 있는 상해 동제대학(同濟大學)과 상해 자동차그룹(上汽集團)의 산학협력으로 2010년까지 제4차 연료전기 자동차 개발에 착수했다. '초월(超越)'이라는 이름의 자동차 연료전기 개발은 이미 3차 개발을 통해 최고 120km/h 속력을 내고 한번의 수소 충전으로 230km를 운행할 수 있는 단계까지 도달했다. 머지않아 10대의 차량이 시범 운행될 예정이며 앞으로 제4세대 개발과정을 통해 상용화될 예정이다. 현재 동종 차량에 비해 가격 면에서 30~40% 정도 비싸지만 연료비용은 1/3이 줄어드는 장점이 있다. 상해市는 앞으로 신(新)전지시스템의 개발과 보급으로 1대당 가격을 100만 위안(약 1억 2200만 원)에서 22만 위안(약 2700만 원)으로 낮출 계획이다.

(www.jfdaily.com/gb/node2/node142/node200/userobject1ai1265143.html)

6. 市營 지하철역을 시민복지의 복합거점으로 활용 (요코하마)

일본 요코하마市 츠즈키區는 市營 지하철 나카가와(中川)역 지하 2층 역사(驛舎) 위에 노인복지와 보육 시설을 위한 지상 4층 규모의 역사 정비사업을 민관 협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토지는 요코하마市가 제공하고 건물은 민간법인이 세우는 것으로, 2007년 4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시작된다. 건물이 준공되면 자원봉사 및 재택간호의 상담창구가 되는 지역케어플라자, 보육시설, 노인보건시설 등 3개 시설이 들어선다. 나카가와驛 주변을 시민복지 등 지역교류 거점으로



조성하려던 츠즈키區는 역사를 활용하기로 하고 복지시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민간 사업자를 2004년 요코하마市 복지국과 함께 공모했다. 빌딩 건설비 14억 5000만 엔(약 120억 원) 중 4억 6000만 엔(약 38억 원)을 요코하마市가 보조하고 지역케어플라자와 보육시설 부지의 상당 부분은 츠즈키區에서 무상 대여하기로 했다.

(www.yomiuri.co.jp/e-japan/kanagawa/news001.htm)

>>> 전문가 검토의견

지하철 역사를 지역복지의 복합거점으로 활용하는 이 사업은 첫째, 시민 접근성이 높은 지하철 역사를 활용하고 둘째, 민관 협동으로 추진되며 셋째, 단일서비스 제공이 아닌 복합서비스센터로서 기능하는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나라 복지사업 시행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지 않더라도 기존 시설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서울시 복지건강국, 여성가족정책관 등에서도 적극 검토해볼 만한 사업이다.

/김선자 도시사회부 부연구위원(sunjakm@sdi.re.kr)

7. 부인 직장에 육아휴직제도 있으면 출산율 3배 증가 (일본)

부인 직장에 육아휴직제도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자녀 출산율이 3배 정도 차이가 난다는 사실이 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이 발표한 ‘21세기 성년 중단(縦斷) 조사’에서 드러났다. 또한 남편의 육아 참여도가 높을수록 자녀가 더 많이 태어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따라 후생노동성은 육아휴직제도 유무에 따른 차이가 명확하다는 사실과 저출산대책으로 제도 정비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2002년 10월말 현재 20~34세 남녀 약 38,000명을 대상으로 결혼, 출산, 일 등에 대한 의식 변화를 추적해 저출산대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이 조사가 실시되었다. 3회째인 이번 조사는 2004년 11월에 실시했으며 약 24,000명의 답변을 분석했다.

2회째였던 2003년 조사 결과에 따르면, 부인이 일을 하는 부부 중에서 부인 직장에 육아휴직제도가 있는 부부의 14.3%가 과거 1년간 자녀를 출산했으나, 이 제도가 없는 부부는 5.2%만이 출산했다. 이 제도가 있더라도 “이용하기 쉬운 분위기”에서는 18.3%, “이용하기 어려운 분위기”에서는 9.8%가 자녀를 출산했다. 이 제도가 있을 경우 부인의 74.2%는 출산 후에도 같은 직장에서도 계속 근무했으나 제도가 없을 경우에는 27.6%만이 계속 근무했다. 2002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녀를 원한다.”고 답한 부부 중에서 이

후 남편의 휴일 가사·육아시간이 늘어난 부부의 30.4%가 과거 1년간 자녀를 출산했고 휴일 가사·육아시간이 줄어든 부부의 20.2%만이 자녀를 출산했다. 특히 둘째 아이는 각각 22.0%와 12.4%가 출산한 것으로 나타나 남편의 육아 참여 정도가 둘째 아이를 낳을 것인지 아닌지를 크게 좌우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朝日新聞, 2006. 3. 9)

8. 배우자 폭력 대책 기본계획 수립 (동경)

동경都는 2004년 12월에 개정된 ‘배우자 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배우자 폭력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제시한 기본계획을 마련했다. 都民 의견을 수렴해 마련된 배우자 폭력 대책 기본계획은 폭력 예방책, 상담, 피해자의 자립생활 지원책 등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해 폭력 없는 사회를 실현하고자 만들어졌다. 배우자 폭력 대책 기본계획의 기본 이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본인 의사를 존중하면서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둘째, 폭력의 배경을 정확하게 인식한 후 폭력 방지를 위해 사회 전체적으로 대응한다. 셋째, 都와 구시정촌(區市町村) 등 관계기관과 민간단체가 상호 연대한다.

(www.metro.tokyo.jp/INET/KEIKAKU/2006/03/70g3e100.htm)

9. 자극적인 관광홍보문구 찬반 논란 (호주)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호주 관광홍보 캠페인에 다소 자극적인 표현이 사용돼 논란이 일고 있다. 호주 관광청(Tourism Australia)이 1억 8000만 호주달러(약 1240억 원)의 예산을 들여 2005년 2월말부터 국내외에서 대대적으로 벌이고 있는 TV 광고 캠페인에, 호주의 모습을 담은 배경화면과 함께 "So where the bloody hell are you?"란 문구가 들어갔다. 이 문장의 의미는 “젠장 도대체 너는 어디에 있느냐? (왜 오지 않느냐?)”이다. 여기서 문제가 된 단어는 'bloody hell'로서 일상대화에서 자주 사용되는 속어다. 호주를 홍보하는 광고에 이 표현이 삽입된 것을 두고 “무례했다.”, “지나쳤다.”, “부정적인 이미지를 주고 있다.”는 비난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 표현과 관련해 호주 국민 대부분은 “다소 직설적이지만 문제없다.”는 반응이지만 공손한 표현에 익숙한 아시아 시장에서 부작용이 예상된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www.hojudonga.com/index.php?p_menu=m_read&seq=1436)

한줄 뉴스

- 파리-로마 자매결연 50주년을 기념하는 ‘Dolce Vita(달콤한 삶)’ 문화행사 기획
- 파리 시민은 로마시립 박물관에, 로마시민은 파리지립 박물관에 무료입장 가능
- 호주 뉴사우스웨일즈州, 어린이 동승 승용차에서 흡연금지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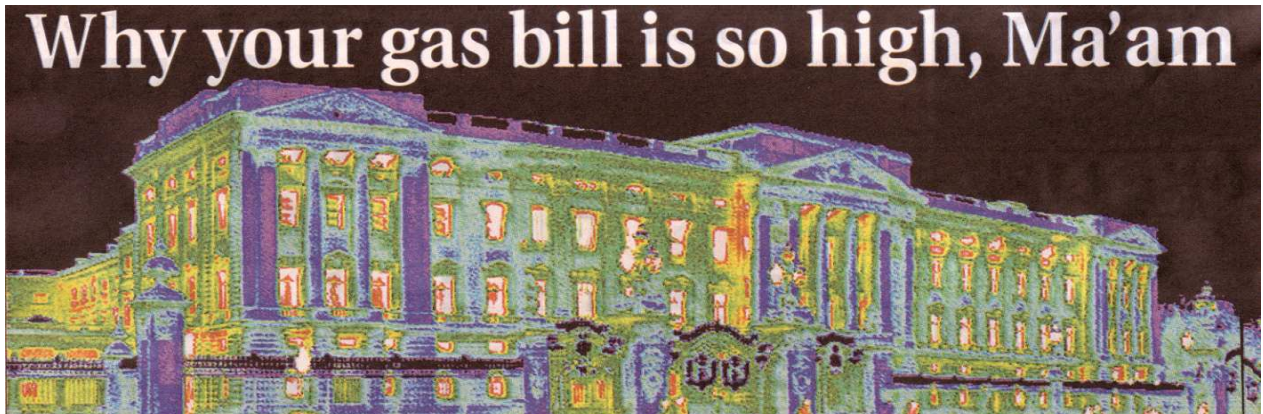
<영국>

- 공공기물 파손과 반사회적 행동을 막기 위한 범정부 대책 수립
- 56개 도시의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를 ‘지속가능한 공동체 정상회의’에서 발표 예정
- ‘지속가능한주택법규’를 제정하여 주택의 지속가능성 표준을 정하기로 결정
- 런던市, 일반인과 장애인의 화합을 위해 3월 23일 제3회 런던 장애인 대회 개최
- 칸느에서 열린 ‘부동산 국제회의’에서 런던시장이 런던의 고층·고밀화 필요성 강조

도 시 환 경

10. 공공기관의 에너지 절약 유도를 위해 열화상(熱畵像) 사진 공개 (영국)

영국 일간지 이브닝 스탠더드(Evening Standard)는 최근 영국의 주요 공공건물이나 랜드마크 빌딩의 열손실 정도를 보여주는 열화상 사진을 일반에 공개했다. 버킹엄 궁전, 런던 시청, 상공부 건물, 의회 의사당 등을 대상으로 열손실을 측정했으며, 이 건물들 중 버킹엄 궁전이 가장 열손실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신문은,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허술한 단열로 낭비되는가를 보여주기 위해” 열화상 사진을 신문에 공개하게 됐다고 밝혔다. 국민 세금으로 충당되는 연료비가 새고 있다는 사실을 풍자한 이 신문은, 이번 보도가 시민들이 에너지 절약의 중요성을 깨닫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버킹엄 궁전의 열손실을 풍자하는 Evening Standard지의 관련기사 제목(“여왕님, 이래서 연료비가 많이 나왔군요”)

(Evening Standard, 2006. 2. 21)

>>> 전문가 검토의견

국제원유가격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막대하다. 최근 국제원유가격이 배럴당 100달러(약 98,000원)까지 오를 수도 있다는 전망이 보도된 바 있다. 세계 각국은 오래 전부터 고유가에 대비하기 위해 에너지 절약, 에너지 효율 제고, 에너지 손실 방지, 신·재생에너지 이용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건물의 에너지 손실 실태 공개는 공공건물의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토록 하는 동기 부여가 될 수 있다. 서울시 생활경제과 등 관련 부서에서는 이와 같이 열화상(熱畵像) 분석기법을 도입해 공공건물은 물론이고 민간부문의 주요 건물에 대해서도 에너지 손실 실태를 조사·분석해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조항문 도시환경부 연구위원(chohm@sdi.re.kr)

11. 베이지역 오솔길 조성비용 추정 연구 실시 (캘리포니아주)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베이지역 정부연합(Association of Bay Area Governments)은 그린인포 네트워크, 알터계획 디자인과 함께 베이지역 오솔길(Trail) 분석 연구를 실시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오솔길은 해안 주변의 길을 뜻하는데 사람들이 걷거나 자전거를 탈 수 있다. 베이지역 오솔길의 장점으로 자전거와 보행을 위한 장애물 제거, 자연과 환경 관찰 기회 제공, 베이지역 해안 접근성 제고, 기존 교통로의 대체도로 조성, 기존 교통망과의 유기적 연계, 녹지공원을 서로 연결하는 녹색길 조성 등을 들 수 있다. 베이지역 전체 오솔길 조성을 위해 2020년까지 1억 8800만 달러(약 1840억 원)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와 있다. 이 비용은 교통인프라로서 조성되는 길을 제외한 것이다. 처음에 시민들은 오솔길 조성비용이 너무 많다고 보았다. 하지만 2005년 베이지역 오솔길 이용자가 약 3900만 명이었고, 이들의 소비가

가져온 경제적 효과는 1억 8900만 달러(약 1850억 원)였다. 이에 따라 환경보호와 경제적 효과가 있는 오솔길 조성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베이지역 정부연합의 오솔길 조성비용은, 지리정보체계(GIS)를 이용해 오솔길 조성에 힘쓰는 조직, 현재 진행 중인 오솔길의 유형, 오솔길 조성의 문제점, 조성비용 및 조성중인 길의 완공시점 등에 대한 정보를 분석해 추정한다. GIS 지도를 이용해 기존 토지이용을 고려한 오솔길 조성방안을 모색하고 여기서 나온 비용 분석결과는 오솔길 조성을 위한 기존 자원 조달과 새로운 재원을 찾는 데 활용한다. 현재까지 담당부서는 432km의 오솔길을 조성했고 앞으로 800km 이상의 오솔길을 추가로 만들 계획이다.

(www.abag.org/SM-MarApr06.pdf, www.baytrail.org)

12. 2006년 옥상녹화 면적 300만㎡ 달성 계획 (북경)

북경市 옥상녹화협회는 2005년 13만㎡에 불과했던 옥상녹화 면적을 2006년에는 18층 이상 건물 옥상면적의 1/20인 300만㎡까지 확대할 수 있다고 전했다. 북경市는 원림녹화국 기술연구소, 북경 과학위원회 지속발전연구센터, 북경 임업대학 등 관련 연구기관과 협력해서 옥상녹화 기술을 개발해 왔다. 현재 연구소와 관련 기업이 보유한 옥상녹화 관련 특허는 30개가 넘으며 옥상녹화와 관련된 건조, 추위, 절수 등의 여러 문제를 해결했다. 현재까지 옥상녹화를 위해 20여종의 개량작업이 끝나 사계절 푸른 옥상녹화를 위한 여건이 조성된 상태다.

(北京日報, 2006. 3. 13)

도 시 교 통

13. 민관 파트너십으로 최적 신호체계 구축사업 추진 (베를린)

베를린市 도시개발부는 민간기업인 'Stadtlicht'와 공동으로 최적 신호체계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운터 덴 린덴路와 프리드리히街 사이의 교차로 신호체계 대체사업이 시작되었다. 이 사업은 신호체계 분야에서 독일 최초의 민관 파트너십이다 'Stadtlicht'는 10년 동안 1억 2600만 유로(약 1480억 원) 규모의 계약을 통해 2,000여개 신호등의 유지, 보수, 현대화 작업의 전반적인 관리 책임을 진다. 신호체계 민영화로 市 재정지출 중 약 100만 유로(약 11억 7400만 원)가 절약될 것으로 예상된다.

(베를린市 도시개발부 보도자료, 2006. 3. 10)

(www.stadtentwicklung.berlin.de/aktuell/pressebox/archiv_volltext.shtml?arch_0603/nachricht2186.html)

>>> 전문가 검토의견

교통신호체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민간기업과 市정부가 다년간 계약을 통해 신호시스템의 종합적인 관리를 위탁하는 방안이 런던과 동경 등에서 이미 시행 중에 있다. 市정부에서 교통신호 운영 목표를 정하면 민간기업은 이를 달성하기 위해 신호 운영을 최적화하고 유지·보수의 효율화를 통해 비용절감 노력을 하게 된다. 이러한 민관협력시스템은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며 베를린을 비롯한 여러 도시에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자치경찰제 시행에 앞서 서울시에서도 교통신호시스템의 효율화를 위한 다각적인 정책 검토가 필요한 시점에서 이러한 세계적인 흐름도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

/김원호 도시교통부 부연구위원(wonor@sdi.re.kr)

14. 시드니 공항전철 매각 추진 (호주 뉴사우스웨일즈주)

만성적자에 허덕이던 시드니 공항전철(Airport Rail Link)이 법정관리 끝에 민간에게 매각될 전망이다. 2000년 시드니 올림픽 때 개통한 이 전철은 개통 6개월 만에 운영권자인 에어포트 링크 컴퍼니(ALC)가 적자 누적으로 운영권을 포기하면서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州정부 예산 8억 호주달러(약 5500억 원)가 투입돼 민관 공동투자 방식으로 건설된 시드니 공항전철은 제3섹터 프로젝트의 대표적인 실패사례로 꼽힌다. 시드니 공항전철이 실패한 가장 큰 요인인, 너무 높게 책정된 요금 때문에 개통 당시부터 지금까지 시민의 외면 속에서 적자로 운영되어 왔다. 2005년 10월 기준으로 하루 평균 이용객이 14,000명에 불과해 당초 하루 예상 이용객 48,000명의 30%에도 미치지 못했다.

(www.hojudonga.com/index.php?p_menu=m_read&seq=1455)

15. 어린이 안전한 자전거 타기 경시대회 개최 (런던)

런던교통공사(Transport for London) 산하 자전거 이용 촉진센터(Cycling Centre of Excellence)는 초등학교 4, 5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자전거에 대한 어린이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어린이 안전한 자전거 타기 경시대회(Cyclesafer Challenge)를 개최한다. 경시대회는 안전장비 설계, 포스터 제작, 자전거 안전교육 등 3개 경쟁 부문으로 진행되며 수상자는 2006년 10월 5~8일 4일간 열리는 자전거 박람회(Cycle Show)에서 발표된다.

런던 시민의 자전거 이용도는 2%도 안돼, 다른 유럽 도시(베를린 5%, 뮌헨 12%, 코펜하겐 20%, 암스테르담 28%)에 비해 현저히 낮다. 하지만 런던시는 최근 조사에서 절반 이상의 시민 평균 통근거리가 3.2km 미만의 비교적 근거리로 나타나 다양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자전거 이용을 위협하는 교통 정체 문제 해결, 부적절한 도로 표지판 개선, 주차공간 확보, 자전거 운행에 맞는 도로나 경로 확보 등이 그러한 활성화 방안이다.

(www.tfl.gov.uk/tfl/press-centre/press-releases/press-releases-content.asp?prID=723)

(www.cycleshow.co.uk)

(www.saferoutestoschools.org.uk)

(www.london.gov.uk/mayor/transport/cycling.jsp)

16. 투자 확대로 버스 서비스 대폭 개선 (런던)

런던의회 교통위원회는 'Value added?'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런던 버스시스템에 대한 투자 확대로 버스 서비스가 대폭 개선되었다고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4/5년도 버스회사에 대한 연간 공공 서비스 보조금을 5억 5500만 파운드(약 9500억 원)로 확대하고 버스회사와의 계약에 14억 파운드(약 2조 4000억 원)를 투자한 결과 런던시 버스 서비스의 가치가 상승했다고 평가했다. 런던의회 교통위원회는 런던교통공단과 계약한 버스회사의 유기적인 업무 개선 노력과 버스 서비스에 대한 신뢰성 평가가 계약 관계에 직접 반영되는 '질적 인센티브 계약'(Quality Incentive Contracts) 제도를 투자가치 회수의 일등 공신으로 꼽았다.

(www.london.gov.uk/assembly/reports/transport/value-added.pdf)

17. 지하철 소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신소재 및 기술 개발 (상해)

상海市 환경과학연구소는 지하철 소음·진동을 줄이는 신소재 및 기술 개발에 착수했다고 발표했다. 전문가는 “소음·진동은 지하철 바퀴의 편심, 바퀴와 교차지점, 철로의 마찰과 선로 불평형 때문에 생기며, 지하철역 주변 상점 및 보행로에 있는 시민에게 불쾌감을 준다.”고 전했다. 지하철 소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구소는 신소재 개발에 착수했다. 지하철 궤도 위에 있는 상해 음악당에 감진장치를 우선 도입하고 일명 ‘부축(浮筑)’이라는 기술을 이용해 음악당 내에서 진동과 소음을 느끼지 않도록 했다.

(www.jfdaily.com/gb/node2/node142/node144/userobject1ai1263907.html)

도시계획·건설·주택

18. 저소득층과 중산층을 위한 10개년 주택개발계획 발표 (뉴욕)

뉴욕市の 성장과 지속적인 인구 유입으로, 값싸고 질 높은 주택 공급이 뉴욕市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블룸버그(Bloomberg) 뉴욕시장은 2006년 2월 23일 자신의 선거공약을 확대한 10개년 주택개발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미국 역사상 최대의 지역주택개발계획으로 평가된다. 10개년 주택개발계획은 민간주택시장을 활용해 50만 저소득층과 중산층 시민에게 2013년까지 16만 5000가구를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계획은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市소유지의 혁신적인 사용방안, 저소득층과 중산층을 위한 주택개발방안 등을 포함하고 있다. 뉴욕市는 이 주택건설계획이 저소득층과 중산층을 뉴욕에 거주하도록 유인하고, 뉴욕 경제를 지속적으로 성장시킬 것으로 기대한다.

(www.nyc.gov/cgi-bin/misc/pfprinter.cgi?action=print&sitename=OM)

19. 미국계획협회 우수계획상 수상작으로 ‘웨스트 첼시 하이라인’ 계획 선정 (뉴욕)

2005년 뉴욕市 의회의 승인을 받아 추진 중인 웨스트 첼시 하이라인(West Chelsea/High Line) 계획이 2006년 미국계획협회(The American Planning Association)가 수여하는 우수계획상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뉴욕 맨해튼의 역사적인 건축물인 하이라인은 1930년대 웨스트 사이드의 정육시장에 철도화물을 운송하기 위해 사유재산 상공에 건설됐다. 그러나 25년 이상 방치되어 현재는 야생화와 잡초로 뒤덮여 독특한 풍경을 연출하고 있다. 웨스트 첼시 하이라인 계획은 맨해튼 서부 16가와 30가 사이의 개발대상지역에 새로운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을 개발할 기회를 제공하고 하이라인 고가철도를 독특한 열린 공간으로 새롭게 활용하며 주변의 화랑지구 발전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계획은 토지소유주들의 하이라인 철거압력을 극복하고 다양한 개발목적을 잘 조화시킨 사례로 평가된다.

(www.nyc.gov/html/dcp/html/about/pr011206.shtml)

20. 도시재생을 위한 운하복원계획 추진 (영국 브라드포드市)

영국 브라드포드(Bradford)市는 기존 운하길을 복원해서 도시를 재생하는 방안 연구를 전문가들에게 의뢰했다. 전문가들은 市중심에서 외곽으로 이어지는 운하 복원은 부족한 주택 건설과 복합용도 상업시설 개발로 도심 활성화에 기여하며, 복원될 운하지역이 가장 낙후된 지역임을 고려할 때 일자리 창출과 도심재개발 차원에서도 큰 효과를 낼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계획이 성공적으로 진행된다면 복원된 운하길을 따라 5,000호의 주택과 복합용도시설이 들어선 도시마음이 조성된다.

(Planning, 2006. 3. 16)

21. 도시조명경관 연구센터 확장 (프랑스 리옹市)

최근 Royal Philips Electronics는 프랑스 리옹市에 있는, 도시 조명경관을 연구하는 센터(Outdoor Lighting Application Centre)를 확장했다. 도시 속 삶의 질이, 섬세한 도시조명과도 연관이 많아 이 센터에서는 도시 전체의 조명경관계획에 대한 실험과 연구를 한다. 특히, 새로운 기술인 발광다이오드(LEDs: Light Emitting Diodes)는 에너지 효율성, 심미적 가치, 건축물 적용 가능성 등이 상대적으로 높아 도시조명에 사용하면 기존 조명과는 다른 양질의 도시조명이 가능하다.



(www.rudi.net/udunews/index.cfm#city)

한줄 뉴스

- 北京市, 금년부터 과일 등급판매제도 시행

<상해>

- 중앙정부에 정식으로 디즈니랜드 유치 허가 신청
- 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 가짜명품으로 유명한 상양시장 폐쇄 결정
- 물동량 해결을 위해 북경-상해간 고속철도 건설 추진